

정의화 “다음세대 생각하는 정치인 되길”

초선 당선인 축하 오찬 자리에서 “참을 줄 모르면 아마 앞날이 험난”... 박관용, “욕먹지 않는 국회의원”

정의화 국회의장은 11일 20대 총선 초선 당선인들의 축하 오찬 자리에서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 말고 항상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정치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오찬 환영사를 통해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 주중에 다음 선거를 생각해 다른 일들을 많이 하면 사즉생(死即生)이 생즉사(生即死)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정치를 하면서 참을 줄 모르면 아마 앞날이 험난해질 가능성 많을 것”이라며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막말도 하고 싶고 이럴 수 있을텐데 그럴 때 꼭 참으면 미래가 밝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아울러 “호시우행(虎視牛行)이라는 글자를 선물받은 적이 있는데, 멀리 보고 소가 가듯이 천천히 가라는 뜻”이라며 “여러분들도 큰 정치를 하고 싶은 분들이니 ‘호시우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관용 전 의원은 “여러분들은 정파를 가리지 말고 132명이 힘을 합쳐서 멋진 국회, 욕먹지 않는 국회를 만들자는 결의를 갖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기 전 의원은 “당내 평가와 동료 평가 모두가 앞으로의 4년 사이에 다 결정된다”며 “초선 때는 이것저것 허려하지 말고 새롭게 만난 같은 동료 초선의원들, 선·후배 정치인들과 신뢰관계를 쌓는데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찬에서는 최연장자인 박준영 국

민의당 의원이 당선인 대표로 건배제의를 했다. 박 의원은 “여러분들은 당선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자고 결심했을 것”이라며 “끝까지, 조선으로”라는 건배사를 했다. 각 당 대표 인사도 건배제에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정의당 순으로 건배사가 순서가 돌아갔다. 이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초선 당선인 변화의 모습을 바라는 차원에서 “초선, 변화를 건배사로 택했다. 새누리당을 대표한 정갑윤 부의장은 정치의 위기상황을 언급하며 “위하여”를 건배사로 외쳤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초선에서 국민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변화였다. 변화

는 곧 공부하는 의원, 일하는 국회, 밥값하는 정치가 아니겠느냐”면서 “일하는, 국회”, “밥값하는, 정치”라는 두 번의 건배사를 제언했다. 한편 정 의원들은 사뭇 상기된 표정으로 다른 당 초선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주고 받았다. 초선 의원들은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마련된 원형테이블에 마주 앉아 서로 축하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당선인들은 오찬 뒤 분회회장을 방문해 전자투표를 시연하는 등 미리 의정활동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상주 기자

이춘석 국회의원 “지역헌안 해결 적극 노력”



이춘석 의원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10일 오후 중앙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주민자치위원장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지역발전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노력을 이어갔다. 이날 간담회에는 10여 명의 주민자치위원장이 참석했고 ▲평화지구 주거환경 개선 ▲송학동 변전소 육내와 이후 공원 조성 ▲황등호 복원 및 관광 활성화 ▲북부권역 장기개발계획 마련 등 다양한 지역현안 문제를 제시했다. 이 의원은 “지역 대표들이 주중한 지역헌안에 적극 공감하며 20대 국회에서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신광영 기자

김춘진 국회의원, 싱글맘 컨퍼런스 개최



김춘진 의원

김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창부안)은 1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6회 ‘싱글맘의 날’ 기념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입양되는 영유아 10명 중 6명은 미혼모 아동으로, 미혼모 아동 입양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다수 미혼모들이 임신, 출산, 양육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양육권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국회, 정부, 시민단체가 한 자리에 모인 만큼 더욱 뜻 깊다”며 “국내 각계 전문가, 해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미혼모 아동의 인권침해 위험을 예방하고, 나아가 싱글맘 가정을 위한 지원과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양성빈 도의원, 녹색성장 조례안 상정



양성빈 의원

전라북도의회 양성빈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군)은 이날 열리는 332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한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 최소화과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서 마련됐다. 주요 골자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내용을 추가 규정했고 전라북도지사가 녹색성장추진계획과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기후변화대응 실험농장 육성, 병해충 방제기술, 신소득 작목 발굴과 이상 기상에 대응한 영농 현장에로기술 지원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성빈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갈수록 잦아지는 이상기후에 대응, 전라북도가 선도적 역할을 통해 농촌과 농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박재만 도의원, 새만금 폐기물 매립 따져



박재만 의원

전라북도의회 박재만 의원(군산 1)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제332회 임시회에서 새만금 매립토로 충청지역 발전소 석탄재 폐기물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환경영향조사 검증 및 타당성 여부를 따져 묻는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27일 한국중부발전,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청은 3시간 TF팀을 구성하고,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공사에 보령항로 준설토 및 보령화력발전소 석탄재 폐기물을 매립토로 활용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며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사안을 전북도민을 제외하고 매립사업 추진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아무리 사업의 주체가 한국농어촌공사와 새만금개발청이라고 해도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새만금도 입찰을 충분히 밝히고 그에 대한 적극 대응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의 적극적 행보를 촉구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12년 서천화력발전소 석탄재를 새만금 매립토로 활용하려고 했을 당시, 중금속 등으로 인한 환경유해성에 대한 조사를 했지만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석탄재 매립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해 전라북도에서 나서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맡겨 조사한 결과를 도민에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광영 기자

전북도의회, 전북장애인체육대회 응원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11일 도내 장애인들의 화합 한마당 축제인 ‘2016 전북장애인체육대회’ 개최식에 참석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응원했다. 전북장애인 체육회가 주최하고 군산시, 군산시에장애인체육회와 종목별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군산월명체육관에서 2,6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경쟁을 펼친다. 이날 위원들은 “장애인과의 비장애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정신이 되도록 모든 선수가 자부심을 갖고 경기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면서 “이번 제천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꿈과 희망의 대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육상, 배드민턴, 보치아, 콘볼, 론볼 등 20개 종목이 열리며 11, 12일 양일간 진행된다. /신광영 기자

정의당 “김영란법 흔들기 국민 바람 두 번 죽이는 꼴”

정의당은 11일 여권을 중심으로 ‘김영란법’ 수정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과 관련,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가 또 다시 김영란법을 흔들대니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를 만들자는 국민의 바람을 두 번 죽이는 꼴”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강상구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영란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여권에서부터 스물스물 번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김영란법은 이제 시행령이 마련됐고 아직 집행도 되기 전”이라며 “우여곡절 끝에 법안이 만들어졌고, 그나마 통과된 법은 애초 취지에서 한참 후퇴했다는 평가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의 호응은 매우 높다. 움직임이 활발하건 불의한 커넥션과 부정부패를 조금이나마 근절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김영란법에 대한 수정 요구를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뇌물과 접대가 없으면 경제가 위축된다는 기상천외한 논리”라며 “뇌물과 접대 문화를 내수경제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국민 호도는 즉각 중단”이라고 강조했다. /박용주 기자



전자투표 시연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분회의장을 방문한 20대 국회 초선의원들이 전자투표 시연을 하고 있다.

박지원 “연정론, 제발 거론 말아달라” 음소

호남에서 지지율 연일 폭락 관련… “오만하게 보였다면 빨리 반성하고 잘못을 고쳐야”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1일 새누리당과의 연정론 거론으로 호남에서 지지율이 연일 폭락하고 있는 데 대해 “우리가 입장이 난처하다. 제발 좀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음소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BBS라디오 ‘고성국의 아침저녁’에 출연, “인론에서 자꾸 새누리당과의 연정론을 거론하고 있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그는 “제가 주장한 연정론은 당내에서 호남 참여 연정론을 부르짖은 것”이라며 “우리(호남)가 노무현 대통령을 90% 이상 지원했지만 결국 호남은 발전하지 못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역시 아무런 조건 없이 90% 이상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호남 참여 연정론에 관해 “이번에 비록 안철수 대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더라도 호남 발전에 대한 보장이 없고 하지는 것”이라며 “우리(호남)가 더 이상 패배되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같은 취지로 “(호남 참여) 연정론이 증폭이 돼서 새누리당 연정론까지 나왔는데 그것은 정체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제가 당내 의원들에게

자제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그런 말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호남 지지율 폭락 상황에 대해 “꼭 연정론에 원인이 있다고 보진 않지만 국민의당이 승리에 도취돼 오만한 것을 보였다는 몇 가지 지적이 있었다”며 “민약 우려가 오만하게 보였다면 빨리 반성하고 잘못을 고쳐야 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선거 때 확 달아오른 국민의당 지지도가 약간 침체기를 맞지 않았는가 생각한다”며 “또 조정기를 거치고 있지 않은가도 생각하는데 우리가 잘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주 기자

김종인, 당직 개편 전당대회 준비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1일 당직을 개편하며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했다. 김 대표는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정책위의장에 변재일 의원을 임명하고 수석부의장에 한재호 의원을 임명했다. 정책위 부의장에 최은열·김정우·표창원·금태섭 당선인과 김종배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임명했다. 최은열 당선인은 경제분야, 김정우 당선인은 재정분야, 표창원 당선인은 국민안전분야, 금태섭 당선인은 법조분야, 김종배 전 이사장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분야를 맡는다. 김 대표는 변재일 정책위의장과 협의 후 재선급 당선인 중 5명을 정책조정위원장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그의 당직도 개편됐다. 박광은 대변인을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하고 여성대변인으로 송옥주 당선인을 추가 임명했다. 송옥주 대변인은 당에서 20년동안 당직자로 일한 인물이다. 박광은 수석대변인은 “송 대변인은 오로지 실무당직자만 맡아온 분”이라며 “정권교체를 위해 당직자들이 한뜻하마음으로 힘을 모아야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인사 취지를 설명했다. 강희용·한정우·유승화·강신아 부대변인이 유임됐고 강신우 전 사무스타코타주립대 교수가 부대변인에 추가 임명됐다. 전당대회 전에 전국의 당 조직을 정비할 조직강화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 조광범 위 위원장에 정장선 총무본부장, 간사에 이연주 조직본부장을 임명했다. 위 위원으로는 민경환 윤리심판관 부위원장, 김운덕·김영록 의원, 전재수·김종민·전현희 당선인,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 정기철 대구수성을 지역위원장, 김영용 제20대 비례대표후보가 임명됐다. /박용주 기자

새누리, 비대위 백지화 하고 혁신위 설치

새누리당이 11일 총선 참패에 따른 비대위 출범을 국민들에게 약속해놓고 이를 번복, 백지화 결정을 내렸다. 새누리당은 그러면서 비안 여론을 의식, 당내 혁신특별위원회(혁신위)를 설치해 당 개혁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4선 이상 중진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안건은 비대위원장과 비대위 인적 구성 방안 등이었다. 중진연석회의는 1시간 남짓 회의 끝에 비대위 출범을 백지화하는 쪽으로 결론을 모았다. 사실상 친박계의 주장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참석자들이 따르면 비대위원장을 정진석 원내대표가 겸임하는 대신, 당 핵심방안을 논의하는 혁신위를 별도로 설치해, 전당대회 이후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더라도 혁신위 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특히 12명 당선인 전원을 상대로 돌린 설문지에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관리형 비대위와 혁신위를 함께 설치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원장을 겸임하기로 한 정진석 원

내대표는 조만간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 인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혁신위원장을 비롯해 혁신위원을 대거 외부 인사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결론은 그간 새누리당이 총선 참패 뒤 국민들에게 약속해왔던 것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정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달았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전당대회 직전까지 당 대표가 부재한 데 따른 비상 타이틀을 하나 더 붙인 것에 불과하다. 결국 비대위원장이라는 직함만 있을 뿐, 비대위의 존재 자체가 없는 셈이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경선 과정과 당선 직후, 또 당선인 총회를 통해 외부인사를 모셔와 강력한 비대위를 꾸리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에서 말 바꾸기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혁신위의 경우 ‘요식행위’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김무성 전 대표 시절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수혁신위원회의 제정에 불과하다는 지

친박계 주장 그대로 반영 원내대표가 비대위장 겸임

적이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활동한 보수혁신위는 공천개혁 등 온갖 당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한구 공관위원장과 함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기 때문이다. 그나마도 이날 회의에 참석 대상 중진 18명 중 고작 9명만 참석했다. 회의 시간이 맞춰 정시에 원내대표실에 모습을 나타낸 이는 친박계 정갑윤 홍문종 한선교 조경태 김경훈 의원과 비박계 심재철 정병국 신상진 이군현 의원 등이었다. 친박계 마땅 서청원 의원과 친박계 좌장 최경환 의원은 불참했다. 또 비박계 수장 김무성 전 대표, 원유철 전 원내대표,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 원내대표 경선에서 패한 나경원 유기준 김재경 의원, 충청 팽주를 노리는 정우택 의원 등은 보이지 않았다. 총선 참패 뒤 새누리당은 근 한달 동안 혁신은 물론 개혁 방향조차 못 찾고 제지리 결집만 반복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여론 지지층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이상주 기자